

파견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파견대학	국가	핀란드
	대학명	센트리아응용과학대학교
파견기간	2024년 1월 ~ 2024년 4월	
프로그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규 <input type="checkbox"/> 학기제 ※ 파견대학 수학 전공: Business and Management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유럽권 교환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Swiss care에서 5개월 보험을 들었다. 후술하겠지만 비자를 신청할 때 핀란드 내 거주기간 전체에 걸치는 보험이 필요하고 또 그 보험이 최대보장금액을 충족해야한다. 사실 비자 때문에 보험을 두어번 파기했다. 비자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 대부분 유럽권 교환학생들은 학기를 마친 후 유럽국가를 여행하기에 본인 일정에 따라서 보험일을 여유있게 드는 것이 좋다.

출국 전 핀란드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하고 간단한 면접을 보면 된다. 발급비용은 60만원 정도이다. 핀란드에서 4개월 체류하기 때문에 Residence Permit이 필요하고 이것이 있으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핀란드는 EU에 속해있어 3개월 이상 생권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도 비자가 필요하다.

핀란드로 출국했을 땐 핀에어를 이용했다. 러-우 전쟁 영향으로 편도 13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가격은 130만원 가량이었다.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주로 옷과 학용품을 챙겼다. 봄학기 와 가을학기를 구분하지 않고, 핀란드는 매우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방한신발, 방한장갑, 방한모자 등을 꼭 챙겨와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불, 수건 등 대다수의 생필품들은 현지에서 구매했다. 센트리아 전통상 교환학생들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모아놓는 장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냄비, 청소도구 등을 얻었다. 다만 스킨케어류는 한국 제품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니 무조건 챙겨오는 것을 추천한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핀란드는 주로 핀란드어, 스웨덴어를 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레벨은 다를지언정 영어로 소통할 수 있다.

핀란드 사람들은 조용하고 서로 거리를 두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대부분 친절했다. 또 핀란드는 1인당 커피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데, 무려 수업 중에 커피 브레이크가 있을 정도이다.

외식물가는 저렴한 레스토랑을 가더라도 최소 20유로(약 3만원)로 비싼 편이다. 마트 물가는 한국과 비슷하다.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토익점수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인 동시에 등록금도 무료여서 지원했다.

나-2. 공항 - 학교

헬싱키 공항에서 내려서 헬싱키 중앙 기차역으로 이동한 다음 헬싱키-코콜라 행 기차를 타면 된다. 코콜라에 공항이 있지만 비싸서 현지인들도 쓰지 않는다고 한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입학 오리엔테이션에서 담당직원과 전 교환학생이 함께 컴퓨터실에서 수강신청을 한다. 그 전에 무엇을 듣고싶은지 정해서 가면 된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셰어룸 등)

센트리아 대학과 제휴 업체인 Tankkari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된다. 주로 한 거실에 2~3개의 방이 있다. 공유주방이지만 1인 1실로 프라이빗하게 생활할 수 있다. Tankkari 1부터 6까지 있는데 학교에 가까운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본인은 선택하지 않고 랜덤으로 배정되었는데 학교에서 도보 50분 거리의 Tankkari 5에 배정되었다. 좋은 룸메를 만날 수 있어 좋았지만 자전거가 없는 동안 도보통학이 고되었다.

나-5. 교내·외 활동

센트리아 내에서 자주 이벤트를 진행한다.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 예를 들면 썰매타기, 낚시하기, 사우나 하기 등이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추천한다. 특히 교환학생 대상 이벤트는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좋다.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버스비가 3유로(약 4,500원)로 한국에 비해 비싼편이다. 첫 달엔 버스앱에서 한달 정기권을 끊어 이용하고 그 후에는 자전거로 통학했다. 버스 노선이 제한적인 관계로 중

고 자전거를 렌탈하는 것을 추천한다.

핀란드 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연어크림스프와 파제르 초콜릿이다. 연어크림스프는 센트리아 학생 식당에서 가장 괜찮은 음식이었다. 또 운이 좋다면 마트에서 파제르 초콜릿을 세일하는데 지인 기념품으로 챙기기 좋다.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학기 중에 같은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이웃 국가인 에스토니아를 여행했다.

학기 종료 후에는 헝가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3주간 여행했다. 뜻깊은 여행이었지만 만약 계획을 다시 짤다면 다소 짧은 일정이라 더 많은 국가를 방문하도록 할 것 같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센트리아 대학이 있는 Kokkola는 유흥시설도 적고 교통시설도 미비하다. 인구수 자체가 적고 대다수 상점이 일찍 마치기 때문에 도시에 활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친목을 도모할 기회가 많다.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친구들과 교류하는 경험을 쌓길 바란다.

5. 사진 자료 첨부(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그림 1 센트리아 대학교 등곳길



그림 2 친구들과 카드게임



그림 3 눈 쌓인 호수에 입수
(핀란드식 전통 사우나)



그림 4 코끼리 축구 동메달 딴 날



그림 5 교환 학생들과 볼링게임